



(03188)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 T02.724.4100 F 02.724.4109

문서번호: 더벨 2024-115

수 신 : 취업센터

참 조 : 취업센터 담당자

체 목 : 더벨 수습기자 채용의 건

1. 귀교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본시장 전문 미디어인 더벨(thebell)에서 창의적이고 패기 넘치는 수습기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1. 회사소개

더벨은 2007년 출범한 한국 최초의 자본시장 전문 미디어입니다. '자본시장 미디어' 왠지 딱딱해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모든 경제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외 자본시장 및 경제 주체들의 움직임과 변화, 주요 경제·금융 이슈,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이 모두 취재의 영역입니다.

매체 홍수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를 지향합니다. 이미 1000여개가 넘는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더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값을 제대로 매기는 도전을 더벨은 이미 수 십년 째 해오고 있습니다.

좋은 매체와 좋은 기업의 길을 고민합니다. 말뿐인 최고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구성원들에게도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약속합니다. 월 2회 복지 휴무제도를 통해 워라벨을 추구합니다. 기업으로서 더벨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을 자랑합니다.

더벨이 가야할 길은 여전히 멀지만 합니다. 당신의 열정으로 더벨을 빛내주십시오. 더벨 역시 당신의 꿈과 도전을 아낌없이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험난하지만 의미있는 이 여정을 함께할 패기와 열정 넘치는 그대들을 기다립니다.

## 2. 모집요강 : 별첨 참조

주식회사더벨  
대표이사 성화용



# 더벨 수습기자 모집 요강



##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 모집부문      | 모집인원 | 지원자격  |
|-----------|------|---|
| 취재부문 수습기자 | ○명   |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전공불문)<br>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br>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 접수기간 및 방법

- ▶ **접수기간** 2024년 8월 12일(월) ~ 8월 27일(화)
-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 **접수방법** 본사 인재채용 홈페이지([recruit.thebell.co.kr](http://recruit.thebell.co.kr)) 에서 로그인 후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접수
- ▶ **문의처** 경영지원팀 02)724-4100

## 전형절차



### ※ 전형별 합격 발표는 개별 안내

- ▶ **회사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
- ▶ **홈페이지** <http://www.thebell.co.kr>
-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함
- ▶ 기타 서류는 최종합격 후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실무평가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

## 더벨은

- ▶ 2007년 출범한 한국 최초의 자본시장 전문 미디어입니다. '자본시장 미디어' 왓치 딱딱해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모든 경제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자본시장 및 경제주체들의 움직임과 변화, 주요 경제 금융 이슈,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이 모두 취재의 영역입니다.
- ▶ 매체 흥수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를 지향합니다. 이미 1000여개가 넘는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더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가치를 제대로 매기는 도전을 더벨은 이미 수 십년 째 해오고 있습니다.
- ▶ 좋은 매체와 좋은 기업의 길을 고민합니다. 말뿐인 최고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구성원들에게도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약속합니다. 월 2회 복지 휴무제도를 통해 워라벨을 추구합니다. 기업으로서 더벨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을 자랑합니다.
- ▶ 더벨이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지만 합니다. 당신의 열정으로 더벨을 빛내주십시오. 더벨 역시 당신의 꿈과 도전을 아낌없이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험난하지만 의미있는 이 여정을 함께할 패기와 열정 넘치는 그대들을 기다립니다.